

# 현대건설·LG화학 등 안전교육 등한사... 과태료 8억원 넘어

임이자 의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처벌 강화해야"  
대기업 10곳,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 8억236만원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가 총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사업체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분기별로 3~6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건설, LG화학, 현대제철, 삼성물산 등 대기업 10곳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3억33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1억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원, 삼성물산 778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개 기업 중에서는 제조·건설업종이 대다수로 유통업종은 이마트가 유일했다.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금액은 10

개 대기업 총 과태료 납부금액의 61.2%를 차지했다.

두 기업은 2020년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납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가장 많았다.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연 기자 ddunip@sorbiz.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재도시보증공사 서부주재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주택용지 적은 3기 신도시, LH·건설사만 배불리기?

3기 신도시 민간용지, 전체 62.1% 달해... 건설사와 LH는 막대한 이익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용지를 민간주택용지보다 적게 설정해 LH와 민간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중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용지는 37.9%인 316만㎡로 민간용지보다 훨씬 작았다.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에서 민간주택용지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고양 창릉지구(65.9%)다.

허영 의원은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분양 25% 이하, 임대 35% 이상)을 전체 건설 가구의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데 부지면적은 민간보다 크게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는 물론 LH 역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LH는 지난해 매출 27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6000억원 등을 기록,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허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순이익현황에 따르면 LH 분양도시 사업 이익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2% 수준이다. 반면 분양주택 사업 이익은 2017년 5517억원에서 2021년 3조9947억원으로 7.2배가 됐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 17만7000호 중 공공주택 9만2000호가 38%도 안 되는 부지에 건설된다. 그보다 물량이 적은 민간주택 8만4000호는 62%가 넘는 땅에 공급된다"며 공공주택 과밀화로 인한 주거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서동영 기자 weste01@sorbiz.co.kr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이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복지부, 암 제외 사망률 1위 질병 '나물라라'

심뇌혈관질환 급여비, 5년간 19조원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적극 관리 필요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질환은 암을 제외한 사망률 1위로 알려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발생된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5년간 19조1216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이 꼽힌다.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30세 이상 표준화)은 2017년 21.5%

에서 2020년 23.9%로 늘었고, 고혈압은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률이 2005년 8%에 불과했지만 2010년 13.4%, 2015년 17.9%로 급증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환자 등 특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며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bdj@sorbiz.co.kr

목 탄력 UPGRADE!

## 중력 파이팅 크림

티엘 어드밴스드 타이트닝 크림 플러스

**미국 판매 1위\***

탄력효능 관리 최적 레시피

**티엘에 탄력 개선 90% 이상 증가!**

영양가득 매끄러운 피부 결 관리

StriVectin

\* 출처: NPD 그룹 / 미국 프레스티지 뷰티 시장, 스킨케어 브랜드 마다마르 에스테티에 제품 매출, 2019년 1월 - 2022년 3월 동안  
 1) 시월기간: International Research Services, Inc(미국) | 기간: 2018. 01. 10 - 2018. 03. 14 | 대상: 성인여성 40명 (개인적 지원)